

#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권 도약 분기점”

광주경총, 인구 320만·GRDP 150조 광역경제권 기대

투자 유치·일자리·산업 경쟁력…호남권 독자 성장축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 초광역 단일 경제권 형성을 통한 투자 유치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을 넘어 지역 성장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경총은 광주·전남 통합의 핵심 효과로 초광역 단일 경제권 구축에 따른 협상력 강화, 산업 클러스터 시너지 창출, 재정·행정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DP) 약 150조원 규모의 '슈퍼 광역경

제권'이 형성돼 비수도권 최대급 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초광역 단일 경제권이 구축되면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메가시티와 대등한 경쟁 구도가 형성돼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국가 재정사업 유치 과정에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의 슈퍼 지자체로 묶일 경우 정책 결정과 지원 배분의 일관성이 강화돼 지역 내 투자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첨단제조 역량과 전남의 반도체·에너지·우주항공·해양관광 자원이 결합된 초광역 산업 벨트 구상이 제시된다.

산업 기능을 권역별로 분단·연계하는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대기업 생산라인, 미래차, 백색가전 등 대규모 제조 기반을 광역 단위로 유지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고도화와 질 좋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와 생활경제 분야에서도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광주권·동부권·서부권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1시간 단일 생활권'을 구

축하면 물류비 절감은 물론 산업단지·항만·공항·에너지 인프라 간 연계가 강화돼 기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 교통체계 구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생활 편의 증대는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서비스업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소득·복지·일자리 측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관련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의 기대효과로 '소득 증대, 복지 혜택 확대, 일자리 기회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아 통합을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제정 자율성과 권한 이양이 강화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고용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정부의 '5극 3특' 초광역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광주·전남이 하나의 성장축으로 자리 잡는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호남권을 독자적인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산업 이전에 그치지 않고 자산 형성과 지역 자본 축적까지 뒷받침할 때 장기적인 부의 축적과 경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광주 1913 승정역시장에서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 한성숙 중기부 장관, 지역 중소기업과 현장 소통

중기지원사업 설명회 참석…송정역시장서 간담회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광주에서 열린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비롯해 노동부, 광주시 등 정책 유관 기관과 중소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장관은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설명회에서는 2026년 중기부의 주요 방향인 성장 중심 정책 추진, 지역 중심 성장 생태계 강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등 중소기업 지속 성장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질의·견의 등 다양한 의견 제시의 장이 이어졌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함으로써 현장 소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성숙 장관은 "올해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본격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성장 촉진과 성과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 지역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책 접근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한 장관은 광주 송정역 1913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및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의 경영 여건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 올해의 차' 선정

현대차그룹, 북미서 9번 수상…뛰어난 가치 증명  
성능·연비 개선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갖춰



현대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팰리세이드가 자동차 최대 경전지인 북미 시장에서 정상에 올랐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 항공편 플레이스(Huntington Place)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그룹은 북미 올해의 차를 총 9번 수상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글로벌 시장을 리딩하는 자동차그룹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지금까지 현대차 제네시스(2009), 현대차 아반떼(2012), 제네시

스 G70(2019), 현대차 코나(2019), 기아 텔루라이드(2020), 현대차 아반떼(2021), 기아 EV6(2023), 기아 EV9(2024)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2026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루시드 그레이비티(Lucid Gravity), 닛산 리프(Nissan Leaf)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치열한 접전 끝에 팰리세이드가 최종 선정됐다.

팰리세이드는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개선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네온

한 공간성 등 북미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

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수상은 북미 시장의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팰리세이드가 우수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제치고 내연기관 차량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팰리세이드에 탑재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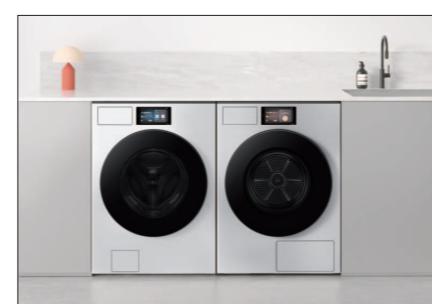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기본교육

##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삼성전자 의류 건조 기술, 美 에너지부 과제 선정  
미국 최대 국립 연구소·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협업



삼성전자는 자사 차세대 의류 건조 기술 연구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공식 지원 과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열회수 시스템'이 적용된 차세대 데시컨트 건조기' 연구를 위해 미국 최대 국립 연구소인 미국 오크리지 국립 연구소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화학공학부와 협업한다.

이 과제는 고효율 제습 소재인 '데시컨트(Desiccant)'를 의류 건조기에 적용해

건조 성능은 유지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조 시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을 '벤트 형(열풍배기식 건조) 건조기' 대비 35% 수준까지 절감하면서도 동등 수준의 건조 성능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벤트형 건조기는 북미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으로 습한 공기를 즉시 외부 배출해 건조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 때문에 미

국의 일반적인 120V 전원 환경에서 사용이 어려워 별도의 240V 전압 공사가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오크리지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은 향후 2년간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120만 달러를 지원받고, 120만 달러를 추가 분담해 총 240만 달러의 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